

2025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270

years
of Watchmaking Experience

바쉐론 콘스탄틴, 2백70년 동안 지속된 워치메이킹의 여정



VACHERON CONSTANTIN
GENÈVE



A Dive into the Heart of the Vacheron Constantin Archives

완벽하고 폭넓은 시간대를 비추는 방대한 문서가 2백70년 동안 지속되어온 역사를 조명한다.

Editorial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70주년을 맞이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킹 메종인 바쉐론 콘스탄틴은 거의 3세기에 걸쳐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내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워치메이커 장-마크 바쉐론(Jean-Marc Vacheron)과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 그리고 파트너 프랑소아 콘스탄틴(François Constantin)이 명성을 쌓아 올린 방식은 두 가지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정밀한 워치메이킹 기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예술이다. 이들은 인그레이빙, 애나멜, 기묘세 기법 등을 예술적 장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오늘날에도 이 탁월한 장인 정신은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 컬렉션을 통해 계승되고 있으며, 메종의 컬렉션 전반에도 그 정신이 녹아 있다. 우리는 <파기로 레전드>를 위해 제네바 인근 플랑 레-와트(Plan-les-Ouates)에 위치한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를 찾았다. 모든 것이 전통과 혼연一体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2004년에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건물이며, 1880년부터 메종의 상장인 밀테 크로스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귀중한 아카이브와 함께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깊은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덕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리 드onguy(Sandrine Donguy)와 스타일 & 혼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는 바쉐론 콘스탄틴 역사뿐 아니라, 스위스 하이 워치메이킹 산업 전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모든 기록을 경신한 '솔리리아'까지, 메종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특별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와 더불어 이번 기념비적인 해에 발표된 특별한 신제품들을 소개했다.

표지 캐비닛이 솔리리아 융트라그랜드 커플리케이션 - La Première Les Cabiniers, Solaria, Ultra Grand Complication - La Première © Le Truc - Benoit Lapray / Vacheron Constantin

1 20세기 초 제네바 물랭(Quai des Moulins)의 바쉐론 콘스탄틴 워크숍. © Vacheron Constantin 2 캐비닛(LeLes cabiniers), 트리뷰트 투 루드 드릴. © Stojan / Vacheron Constantin
3 1755년 'J M Vacheron à Genève' 사명이 새겨진 메종 설립자의 최초 시계. © Nils Herman / Vacheron Constantin 4 제네바의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 © Vacheron Constantin 5 2005년, 두르드 릴 손목시계. © Vacheron Constantin 6 1955년, 메종 설립 200주년을 기념한 문서. © Vacheron Constantin

글 : 제롬 아노베르(Jérôme Hanover)

킹이 발전하기 이전, 스위스 시계 워치메이킹 산업 환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 다이얼, 핸즈, 케이스 등 각 분야 장인들이 분업하는 구조였죠. 장-마크 바쉐론의 캐비닛은 부품을 조립하고 조율하며, 최종 완성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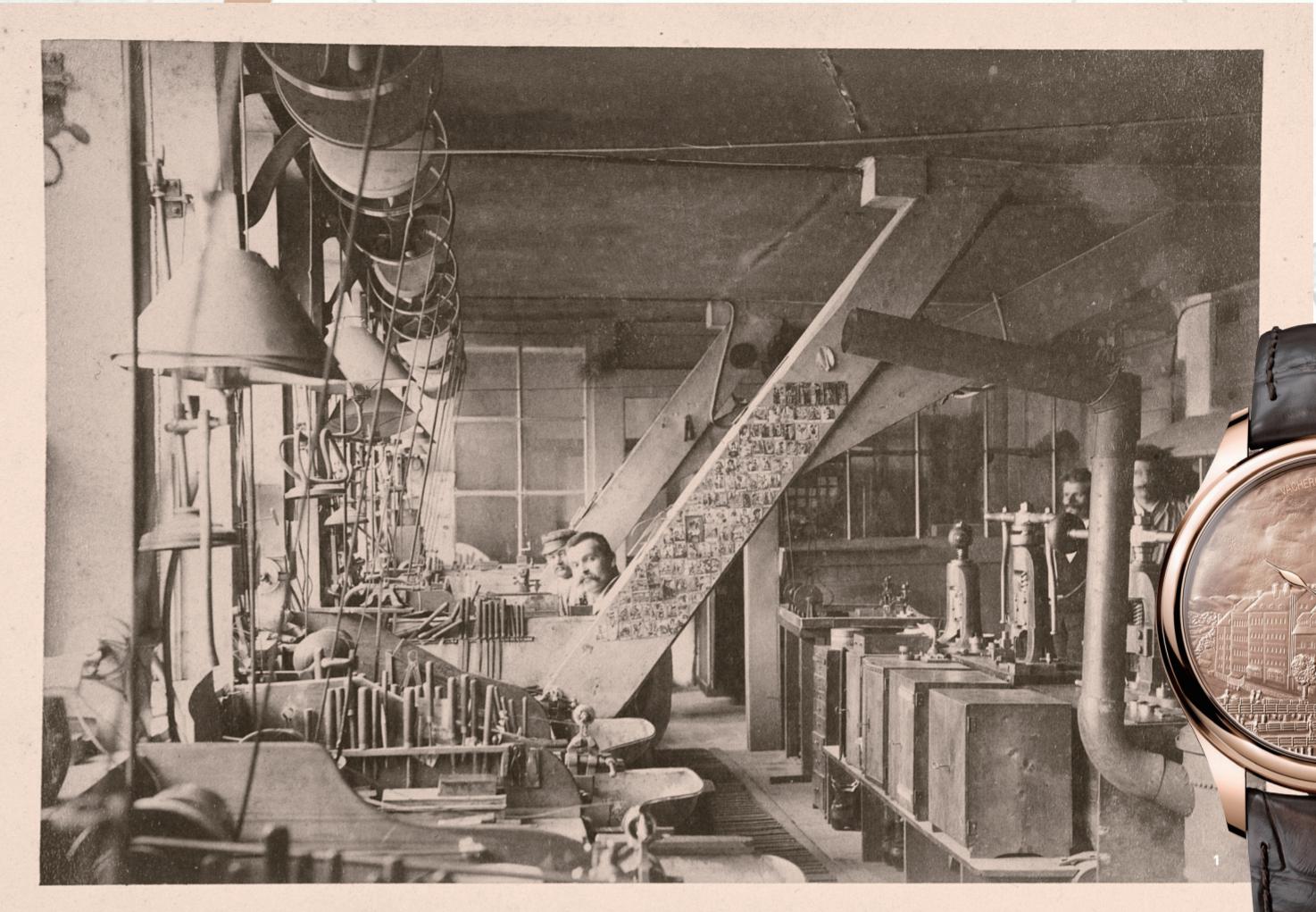
1755년에 제작된 최초의 바쉐론 시계 이후, 1785년 아브라함이 워크숍 운영을 이어받았으며 모델들은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복잡해졌다. "1790년에는 메종 최초의 캘리더 시계가 제작되었고, 1810년 자크-바텔레미 바쉐론이 경영을 맡은 이후에는 퀴터 리피터, 미닛 리피터, 그랑 소네리 같은 고도화된 차임 시계로 진화했습니다"라고 셀모니는 설명한다. 같은 시기, 애나멜링, 인그레이빙, 젬 세팅, 기묘세 같은 장식 기술도 점차 정교해졌다. 이를 증명하는 예가 바로 1829년 제작된 점핑 애워 포켓 워치다. 인그레이빙으로 섬세하게 장식하고 젬 세팅한 이 시계는 현재 메종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1819년, 프랑소아 콘스탄틴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바쉐론 & 콘스탄틴(Vacheron & Constantin)'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된다. 해리티지 부서 책임자 시그리드 오픈슈타인(Sigrid Offenstein)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크-바텔레미 바쉐론은 시계 장인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박람회에 참가했고, 이탈리아 각지를 돌며 시계를 수리하고 자신이 만든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네바에 남아 생산을 맡았죠. 하지만 곧 자크-바텔레미 바쉐론은 상업 활동을 위임하고, 브랜드를 제네바 밖으로 넓혀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난 인물이 바로 파리 귀족 사회에 깊이 연결되어 있던 프랑소아 콘스탄틴이었다. 콘스탄틴의 폭넓은 네트워크는 바쉐론 콘스탄틴을 국제 무대에 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립 이후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계식 기술과 수공예 기법 측면에서 독립 장인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 전통은 쿼츠 위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후 메종은 다이얼이나 케이스 같은 전문 분야에서 외부 전문기기의 협업을 이어가면서도, 주요 기술을 점차 내부화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메종은 단순한 투 핸즈 무브먼트부터 가장 복잡한 커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애나멜링, 기묘세, 젬 세팅, 인그레이빙 등 네 가지 전통적인 장인 기술 역시 모두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6년 방돔 그룹(현 리치몬트)에 인수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2백70년에 걸친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진화는 결국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프랑소아 콘스탄틴의 말 한마디로 귀결된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아카이브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
다이얼이나
케이스 같은
전문 분야에
서 외부 공방과의 협업을 이
어가면서도, 주요 기술을 점
차 내부화하기 시작했다.”
”



1755

1785

1810

1819

1880

1889

1906

1955

1977

1996

2004

2025

장-마크 바쉐론이
최초의 시계 제작 아틀리에에 열고
건축생을 고용함

아브라함 바쉐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업을 승계

설립자의 손자
자크-바텔레미 바쉐론이
경력을 이어받음

프랑소아 콘스탄틴이 동업자로 합류해
시계 및 손목시계 부문의 개발을 총괄,
기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라는 메종의 모토 탄생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 출시
밀테 크로스 등장

제네바 뚜르 드릴
건물 1층에 첫 부티크 오픈

페트리모니 컬렉션에 영감을 준
울트라-씬 칼리버 1003 제작

설립 222주년을 기념해
222 모델 출시

오비시즈 컬렉션 탄생
설계한 새로운 건물을 플랑-레-와트
(Plan-les-Ouates)에 준공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새로운 건물을 플랑-레-와트
(Plan-les-Ouates)에 준공

설립 270주년을 맞아
기념 모델
'캐비닛이 솔리리아' 공개



The Cult of Beauty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계에 관련된 노하우를 넘어, 장인들이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미학에 대한 퀘스트를 통해 늘 타 브랜드와 차별화해왔다.

방식형 기요세를 새긴 실버 톤 디아일은 인개 속 풍경에서 꽃다발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회화로 치면 그리자유와 스푸마토가 어우러진 것 같은 분위기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안드레아 델 사르토(Andrea del Sarto), 안 반 에이크(Jan van Eyck)의 회화는 물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궁전 장식이나 18세기 프랑스 귀족 저택의 문 장식을 떠올리게 한다. 1780년에 제작된 이 디아일은 메종이 초창기부터 장식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시각적 즐거움을 전하려는 의지가깃들어 있다. 영광케나 아칸서스 임 무늬를 넣은 상르베 또는 클루아조네 에나멜 장식, 양식화된 꽃이 상르베 또는 클루아조네 에나멜 장식, 양식화된 꽃이

나 사실적인 꽃다발, 플랭케 배경에서 돋보이는 문장이나 모노그램, 알프스 또는 토스 카나의 풍경, 성모와 애기 예수, 부르주아 인테리어의 초상화, 진주, 보석, 카메오 등 바쉐론 콘스탄틴의 디아일과 케이스는 미니어처 예술의 무대가 되어왔다.

나 사실적인 꽃다발, 플랭케 배경에서 돋보이는 문장이나 모노그램, 알프스 또는 토스 카나의 풍경, 성모와 애기 예수, 부르주아 인테리어의 초상화, 진주, 보석, 카메오 등 바쉐론 콘스탄틴의 디아일과 케이스는 미니어처 예술의 무대가 되어왔다.

18세기, 장-마크 바쉐론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 예술 장인들과 협업했다. 그들은 정식 예술이라는 명칭도 없던 당시에, 코담배 상자, 일약 상자, 오토마통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장식 예술은 1960년대까지 이어지지만, 쿼츠 시계와 스포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죠.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술들을 되살리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의 설명이다.

“
장인 예술은
기술과 함께
우리의 노하우
를 완성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우스 디자인 부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케이스 제작자들이 모델을 디자인해 매뉴팩처에 제안하는 방식이었죠.”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시계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회고한다. 1970년대 들어 시계 전문 디자이너들이 등장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222’ 모델을 선보인 요르크 하이세크(Jörg Hysek)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외부 디자이너와 매뉴팩처 간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바쉐론 콘스탄틴도 1989년에 그 흐름에 합류했다. 이후 2002년부터 메종은 제품 디자인 및 개발 부서를 통합했으며, 오늘날 모든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술과 전문성이 갖춘 스위스 시계 산업 생태계 속에서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수공 마감 기법, 소재, 진귀한 메탈의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가 최고급 시계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다. 그 명성은 눈에 보이는 디테일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깃든다. 예를 들어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모든 부품을 손으로 정교하게 담는 앵글라주는 오직 시계를 열어본 워치메이커만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의 정수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종에서는 섬세한 손길이 오브제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1루브르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메디에 드르(Métiers d'Art)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시婊라이제이션 © Eric Sauvage / Vacheron Constantin 21780년, 포켓 워치 © Nils Hermann / Vacheron Constantin 3빛으로 드러나는 조각 예술, 캐비닛트리에 그로드 컵플리에 선 파니스Les Cabinotiers Grande Complication Phoenix © Vacheron Constantin 4그로자유(Grisaille) 에나멜 제작 과정 © Vacheron Constantin



2



At First Glance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유니크 피스와 메종을 상징하는 컬렉션은 차별화된 미학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메종의 정신을 담아낸다.



“**패트리모니**
(Patrimony)라는
이름을 통해 메종이 자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아이코닉한 컬렉션, 트래디셔널(Traditionnelle), 패트리모니(Patrimony), 히스토릭(Historiques), 퍼프티식스(Fiftysix), 오버시즈(Overseas), 에제리(Égérie) 등 모든 컬렉션은 그들만의 뚜렷한 뿌리와 전통을 보여준다. 그중 일부는 이름 자체로 헤리티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러 모델로 구성된 히스토릭 컬렉션은 숫자로 인해 복수형으로 불리며, 위치메이킹 디자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별된 타입피스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메종의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토릭 222(Historiques 222)다. 1977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22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계로, 일체형 케이스, 흙이 새겨진 베젤, 일체형 브레이슬릿, 그리고 5시 방향에 자리한 말테 크로스가 특징이다. 빈티지 제품을 위한 경매에서 수집가들이 높은 관심을 받은 이 모델은 2022년에 컬렉션으로 다시 돌아왔다.

히스토릭의 또 다른 아이콘은 아메리칸 1921(American 1921)이다. 1920년대의 열정을 품은 이 시계는 쿠션 형태의 케이스뿐 아니라, 1시 30분의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치한 디아일로 독창성을 드러낸다. 이는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중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 결과 수직 축은 10시 30분이며, 스몰 세컨즈는 디아일의 3시 방향에 있는 서브 디아일므로 4시 30분에 위치하고, 숫자 12시와 일직선을 이루는 1시 30분 방향의 크라운은 쿠션형 케이스의 곡선 모서리에 자리하며, 재즈의 선율을 떠올리게 하는 유례한 디자인을 완성한다.

에제리는 여성용을 위한 컬렉션으로, 원형 케이스와 오프센터 크라운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공유한다. ‘패트리모니’라는 이름에서도 메종이 헤리티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1957년 탄생한 초박형 시계는 2004년 컬렉션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간다. 이탈리아 작가 이자 기업가 프랑코 콜로니(Franco Cologni)는 자신의 저서 <시간의 예술>에서 이 컬렉션을 ‘순수하면서도 최상의 절제미, 절대적 우아함의 상장’이라 평했다. 절제된 디자인, 슬림한 케이스, 곡선 핸즈가 이를 잘 보여준다. 2개의 핸즈로 이루어진 버전은 세련미가 돋보이지만, 진정한 도전은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모델에서도 이러한 간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 9시에서 3시 사이에서 호를 그리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절제된 문페이즈, 완벽한 가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브 디아일을 탑재한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모든 디테일이 이 컬렉션의 품격을 더한다. 오버시즈는 1932년 모델에서 계승된 육각형 베젤로, 말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며 스포츠 시계의 정수를 보여준다. 1996년부터는 특허 받은 시스템을 통해 스트랩 교체가 간편해지며 스틸, 러버, 카프 스킨 등 다양한 소재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래디셔널은 이름처럼 메종의 역사와 DNA를 존중하며, 단순한 투 핸즈부터 투르비옹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계단식 원형 케이스, 얇은 베젤, 플루티드 케이스 백, 레일웨이 미닛 트랙, 제네바 바통 아워 마커, 도핀형 핸즈가 18세기 제네바 하이 위치메이킹의 미학적인 코드를 계승하며, 각 케이스에 모든 무브먼트,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위치메이킹의 전문성을 담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1 1994년, 메르카토르(Mercator). © Vacheron Constantin 2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Historiques American 1921).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3 1966년, 크로노미터 로얄(Chronomètre royal). © Vacheron Constantin 4 그랜드 레이디 칼라(Grand Lady Kalla), 주얼 워치. © Le Truc / Vacheron Constantin 5 히스토릭 222 (Historiques 222) 스틸 버전.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6 1972년, 손목시계. © Vacheron Constantin 7 오버시즈(Overseas) 울트라-씬 스켈레톤 퍼페추얼 캘린더.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8 히스토릭 콘 드 바슈 1955 (Historiques Comtes de Vache 1955). © Vacheron Constantin 9 패트리모니 메뉴얼 와인딩.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10 트래디셔널(Traditionnelle) 매뉴얼 와인딩 27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The Journey Toward Complications

소네리(sonnerie), 차임 메커니즘, 천문, 크로노메트리, 소형화까지. 2백70년 동안 바쉐론 콘스탄틴은 기계적 탁월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올해, 이 모든 위업을 하나로 집대성한 솔라리아(Solaria)를 선보였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초기 모델이며, 당시에는 바쉐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시계들은 2개의 핸즈를 갖춘 포켓 워치였다. 곧 초침이 추가되면서 시간 측정과 정확성이 한층 높아졌다. “저희가 제작한 최초의 캘린더 시계는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몇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말한다. 이후 바쉐론 콘스탄틴은 캘린더를 갖춘 천문 시계뿐 아니라, 차임 워치, 쿼터 리피터, 미닛 리피터, 그리고 그랑 소네리로 이어지는 복잡한 워치메이킹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보관된 서신에 따르면, 1806년 한 프랑스 고객이 바쉐론 콘스탄틴에 최초의 쿼터 리피터, 즉 15분마다 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주문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아틀리에에서는 첫 그랑 소네리 시계가 완성되었다. 이 시계는 15분마다 시간을 울리고, 푸셔를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시간을 들려주었다. 메커니즘 내부에는 2개의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공이 자리하며, 2개의 해머가 이를 두드려 소리를 낸다. 매시 징각에는 낮은 음으로, 15분은 짧게 이어지는 두 번의 음으로, 분은 가장 높은 음으로 시간을 알

렸다. 케이스는 정밀하게 조율된 공이 내림 4도 음정을 또렷하게 울려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알리는 공명 상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음향 공학의 정수가 깃들어 있다. 또 다른 난관은 이 컴플리케이션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위한 두 번째 배럴과 에너지 분배를 조율하는 앵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애워 소네리가 폭주하거나 미닛 소네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교한 메커니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조율한다.

크리스티앙 셀모니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은 메종 설립 초기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으며, 19세기 후반에는 크로노메트리 분야에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정밀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제네바, 브룅송, 렌던 천문대가 주관한 경연 대회를 위해 개발한 시계들을 통해 입증되었죠.”

20세기 초 손목시계의 등장과 함께 소형화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메종은 퍼페추얼 캘린더,



1 칼리버(Calibre) 2460 G4/2. © Vacheron Constantin 2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베클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Vacheron Constantin
3 앵글라주 수작업. © Vacheron Constantin 4 벨련스와 벨련스 스프링.
© Sully Balmaliere / Vacheron Constantin 5 트레디셔널 오픈페이스
(traditionnelle openface). 세 가지의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메종의 역사에
비치는 현대적 오마주. © Clement Rousset / Vacheron Constantin 6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Les Cabinotiers, Solaria, Ultra Grand Complication), 올트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Le Truc / Vacheron Constantin



A Conversation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프로덕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와의 대화.

2025년 9월 17일 설립 270주년을 맞이한 바쉐론 콘스탄틴.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1년 내내 이어진다.

Q. 신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요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산드린 동기 기념 행사는 1월 13일 화려한 제품 출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히스토릭 222의 스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1977년 매뉴팩처 설립 22주년을 기념해 처음 출시된 시계로, 2024년에 엘로 골드 버전을 재출시한 뒤 수집가들의 요청이 이어졌던 모델입니다. 우리는 첫 기념 시계가 고객의 기대에 직접 부응하고, 동시에 우리가 고객 및 유동 네트워크와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의뢰받은 유니크 피스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제품은 언제나 천의적인 시각, 헤리티지, 그리고 수집가의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에는 페트리모니와 트레이디셔널의 클래식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12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더해 컬렉션을 발전시키고 헤리티지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말테 크로스의 새로운 해석이나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장인이 두 단계의 브레이싱으로 완성한 인그레이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1백27개 또는 3백7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대적 미학을 담으면서도 전통에 뿌리를 둔 작품입니다. 올해는 캐비노티의 컬렉션에서도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유니크 피스가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앙 셀모니 이러한 마일스톤의 기념일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넘어 위치메이킹 전문성에 대한 헌정을 확장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설립 250주년을 맞은 2005년에는 16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

은 7점의 리미티드 에디션 뚜르 드 릴(Tour de l'Île) 손목 시계를, 260주년을 맞은 2015년에는 57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은 유니크 포켓 워치 레퍼런스 57260(Référence 57260)을 선보였던 것처럼 올해는 41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술을 집약시킨 손목시계 캐비노티에 솔라리아를 선보입니다. 전문성을 끝없이 탐구하는 매종은 언제나 천문학을 핵심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이 시야에 들어오는 시각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포함해 다섯 가지 천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을 처음으로 결합했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제품을 넘어, 기술과 예술의 탁월함은 물론 이를 만들어내는 숙련된 장인들, 즉 시계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이들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Q. 이번 기념일이 부티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산드린 동기 우리는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과 마이애미에 플래그십 오픈, 파리 부티크의 라노베이션과 확장이 기념행사의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는 커비노티의 컬렉션에서도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유니크 피스가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티앙 셀모니 이러한 마일스톤의 기념일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넘어 위치메이킹 전문성에 대한 헌정을 확장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설립 250주년을 맞은 2005년에는 16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

언제나
매종은
유럽 중심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스위스의 특성을 닮아, 수출
사업에 전념해왔습니다.”

Q. 바쉐론 콘스탄틴은 주요 고객의 주문으로 제작되는 유니크 피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전에는 이런 고객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하셨나요?

크리스티앙 셀모니 대부분의 고객은 은행가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Henry Graves Junior), 기업가 제임스 워드 팩카드(James Ward Packard)처럼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명 수집가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옹 호텔 레터헤드

너십을 맺으면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인접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통한 해외 확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노바는 오스만 제국, 중동, 극동으로 향하는 항구였고, 르 아브르는 19세기 전반부터 현지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아메리카 시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뉴욕의 존 마방(John Magnin)과 같은 현지 업체를 통해 미국 내 유통을 관리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출신 독립 에이전트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이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홍콩, 이탈리아, 독일 등에 자회사가 창립되었는데, 파리에는 1853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후 방동 그룹에 인수되면서 직접적인 유통이 가속화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직영 부티크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이 흐름이 더욱 강화되어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티크들은 고객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Q. 컬렉션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크리스티앙 셀모니 20세기 초까지 저희 시계들은 모두 유니크 피스거나 많아야 5점 이하의 한정 수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델을 관리하는 레퍼런스 시스템도 1930년대에 등장했고, 이때부터 수년에 걸쳐 수십 점씩 같은 모델을 생산하며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특히 1977년 공통된 미학으로 다양한 크기로 출시된 222 모델에

프랑소아 콘스탄틴에게 보낸 서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특정 모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특별한 인格레이빙이나 케이스 스타일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 디자인 과정에서 고객과 주고받은 긴 서신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 칠레의 부유한 수집가가 의뢰한 돈 판초(Don Pancho) 시계는 1936년에 2개의 디아일, 미닛 리피터,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기능을 갖춘 손목시계로 요청되었으며, 매뉴팩처와 마드리드 유통업자 사이에서 4년에 걸친 서신 교환 끝에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소통 방식이 발달되었고, 주로 웹사이트(WhatsApp) 같은 현대적인 수단을 쓰지만, 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알고 지내던 한 미국의 수집가는 2015년에 이메일로 당시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차이니스 퍼페추얼 캘린더가 적용된 특별한 시계를 요청했고, 그 결과 베클리(Berkley)가 탄생했습니다.

Q. 바쉐론 콘스탄틴에 혁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크리스티앙 셀모니 혁신, 대담함, 창의성이 없는 4세기에 걸쳐 27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혁신은 언제나 매종 본질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혁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기능이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무엇보다 시계 제작 기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럼에도 장인의 손에 담긴 지혜는 여전히 우리 시계 예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솔라리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형화 연구에 중점을 둔 13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Q.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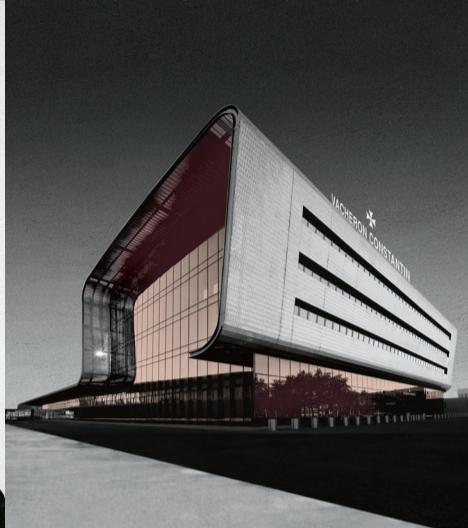
산드린 동기 현재 우리의 개발 주기는 3~10년입니다.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칼리버 개발에는 8년에

서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긴 여정이며, 그 과정 동안 처음의 의도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되,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역시 필요합니다. 1996년 출시된 오버 시즈 컬렉션은 현재 세 번째 버전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에는 크기를 더 강조하며 존재감을 기웠고, 2007년에는 부드럽고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응력과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트렌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학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티앙 셀모니 2백70년에 걸친 클래식하고 세련된 위치메이킹 헤리티지를 지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유산과 고유의 스타일 사이의 섬세한 연관성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현재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의 성공을 지속시키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크리스티앙 셀모니,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 Vacheron Constantin **2** 산드린 동기, 프로덕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 Vacheron Constantin **3** 에제리 문베이즈,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4**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Le Cabinotiers Répétition Minutes Tourbillon). © Philippe Palma / Vacheron Constantin **5** 캐비노티에 셀레스티아 그랜드 캠플리케이션(Les Cabinotiers Celeste Astronomical Grand Complication). © Vacheron Constantin **6** 트레디셔널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Traditionnelle Twin Beat Quantième Perpétuel), 2019 GPHG 이노베이션상 수상. © Vacheron Constantin



1755년 제네바에서 하이 워치메이킹의 탁월함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 인내, 전문성을 향한 도전.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결코 끝나지 않을 도전.

바쉐론 콘스탄틴은 탁월함을 추구해 온 역사의 270주년을 기념합니다.

*the
G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VACHERON-CONSTANTIN.COM